

»» 사단법인 2기 회장단 및 임원진

- 회 장 : 류기정 (한진중공업 건설 상무)
- 부 회 장 : • 수석부회장 대외협력 담당
 이양희 (아이에이스컨설턴트 부사장)
 • 편집 및 홍보 담당
 김진홍 (흥익기술단 전무)
 • 기획 및 제도개선 담당
 홍성영 (스미텍엔지니어링 사장)
- 총 무 이 사 : 곽수정 (한미기초 사장)
- 이 사 : 강신철 (동아기술공사 전무)
 고광진 (동남기초 사장)
 김경택 (대림산업 과장)
 김동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전무)
 김상수 (토탈지오이앤씨 대표이사)
 김학청 (신우CEC 사장)
 남현우 (서영기술단 전무)
 박상국 (주춧돌이앤씨 대표이사)
 박재원 (대한콘설턴트 이사)
 백경종 (다솔컨설턴트 대표이사)
 서동현 (현이앤씨 대표이사)
 안상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실장)
 오해진 (제일엔지니어링 전무)
 이기용 (정토지오텍 부사장)
 이명재 (도담이앤씨 사장)
 이재훈 (동일기술공사 부사장)
 이정재 (케이투기술단 대표이사)
 이종구 (금호엔지니어링 전무)
 이종범 (우대기술단 전무)
 임수빈 (아이에이스컨설턴트 대표이사)
 전성기 (전엔지니어링 사장)
 정삼용 (남원건설ENG 부사장)
 정종민 (천일기술단 전무)
 조성하 (다산이앤씨 상무)

- 조성한 (GS건설 팀장)
- 최영근 (아이콘텍 대표이사)
- 최인걸 (유신코퍼레이션 상무)
- 최해준 (청석엔지니어링 상무)
- 한석희 (청석엔지니어링 전무)
- 한태곤 (한진중공업, 건설 부장)
- 감 사 : 조성민 (평원엔지니어링 사장)
 김상환 (호서대학교 교수)

- 기술위원장 : 백경종
- 편집위원장 : 김상수
- 홍보위원장 : 서동현
- 대외협력위원장 : 김동민
- 제도개선위원장 : 최인걸
- 윤리위원장 : 김학청
- 지반재해방지센터장 : 안상로

»» 기구·조직 개편

1. 부회장

- 젊은 회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수석 부회장제 신설.
- 부회장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위해 2-3개 위원회씩 담당하도록 함.

2. 당연직 이사 신설 및 이사회 증원

- 기술위원회의 활성화, 의사 결정의 일원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술위원회 각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
- 이사수를 14명에서 3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

3. 윤리위원회 신설, 강화

- 1기 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한 것을 이여반아 김학청회원(신우CEC사장)을 윤리위원장으로 선임.

- 회장의 요청에 따라 외부 기관의 심의, 자문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 등의 권한을 윤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등 윤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

4. 지반재해방지센터 신설

- 지반재해 증가와 함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방재 업무의 수요와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 지반재해 관련 업역 확대 및 참여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지반재해 관련 대외 공익 지원 활동 업무 기획.

정관 개정

- 회무를 보다 원활히 처리하고 보다 많은 회원의 참여를 유도할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합목적적인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을 개정함(표 1).

상기 개정안에 대해 2005년 6월 9일 개최된 정기총회에 서 원안 통과되었으며, 6월 20일자로 주무부인 과학기술부(과학기술진흥과)의 승인 통보를 받았음.

표 1. 정관개정

종 전 규 정	개 정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2. 부회장 - 2인 3. 이 사 -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2. 부회장 - 3인이내 3. 이 사 -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40인 이내
제19조(총회의결방법) (2) 참석회원 및 위임장으로 위임한 회원을 포함하여 참여한 회원수를 참여인원으로 규정하며 참여인원이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고, 참석회원이 참여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총회가 성립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결방법) (2) 참석회원 및 위임장으로 위임한 회원을 참여인원으로 규정하며 <u>참여인원이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총회가 성립될 수 있다.</u>
제24조(이사회회의 소집)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회의개시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회의 소집)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회의개시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다만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27조(각 위원회) (1)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위원회 2. 기술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대외협력위원회	제27조(각 위원회) (1)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u>필요한 경우 이 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증감 할 수 있다.</u> 1. 기획위원회 2. 기술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대외협력위원회 <u>6. 제도개선위원회</u> <u>7. 선거관리위원회</u> <u>8. 윤리위원회</u> <u>9. 지반재해방지센터</u>
부 칙	부 칙 (3) 이 정관은 2005. 6. 9 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도 개선 관련 주요 소식

1. 국가외 검정금지종목 개편안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시행령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2004년 2월 노동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새로운 산업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외 검정금지종목 대상 종목(즉, 국가만이 검정을 수행하는 종목)'을 축소하는 것이며, 그 기준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직결되는 종목이었습니다.

노동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에서 2001년도부터 개정안마련을 위한 설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토질및기초기술사 종목을 제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2003년 12월 예고된 개정안에 토질및기초기술사 종목이 국가외 검정금지종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회원들의 큰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제도개선위원회(당시 위원장 전성기, 간사 박재원, 송훈, 이정재)를 중심으로 전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동부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직능원을 방문하여 담당 연구원을 설득하여 토질및기초기술사 종목이 원래대로 국가외검정금지종목 대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느낀 것은 법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의 자구 하나가 우리의 존재 기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국가의 법과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늘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점, 평소 국가 기관 등 유관 기관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회원 모두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지질및지반기술사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의 건

2005년 2월 지질및지반기술사협의회 등에서 노동부에 소관 주무부장관을 과학기술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야기된 이 건은, 회장단을 위시하여 제도개선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어 도처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결과 결론적으로 소관 주무부장관이 변

경되지 않았습니다. 과정상의 자세한 내용에서는 별도의 언급을 생략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지질및지반기술사는 산업응용분야의 응용지질과 지구물리, 광업분야의 탐사 등 3종목이 통합되어 명칭을 개칭한 것입니다. 2002년 이후 기술 자격 종목들의 통폐합 흐름을 타고 이루어진 일인데, 문제의 핵심은 분야나 주무부장관보다는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건설 토목 분야에서 토질이란 용어를 대신하여 지반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토질공학회가 지반공학회로 개칭되었고 각 엔지니어링사의 토질부 역시 지반공학부 등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조사보고서의 이름 역시 지반조사 보고서로 통칭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만이 지반이라는 용어를 독점할 수는 없겠으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질및지반기술사 개칭 이후 발주기관 등에서 적지 않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질및기초 종목 대신 지질및지반으로 입찰 참여 조건에 제한되어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참여가 배제되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사면이나 연약지반과 관련해서도 토질및기초기술사 대신 지질및지반기술사의 검토,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관 주무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업역과 관련하여 큰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단 업역의 문제를 넘어 실제와 부합하지 않게 명칭을 개정하여 타종목 기술 자격을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이는 도덕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현재 토기회의 입장입니다.

물론, 지질및지반기술사 역시 큰 틀에서 본다면 같은 기술사로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바 적지 않고, 건설 토목 분야에서 협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도 안될 것이기에 앞으로 우리회와 회원들에게 고민과 숙제를 안겨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가을기술발표회 관련 주요 소식

2004년 11월 12일 제2차 가을기술발표회가 회원 및 유관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우리회가 주최하고 지반공학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반공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회가 주관하여 발간한 '지반구조물 설계시공사례집'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였고, 여기에 수록된 굴착, 기초, 사면, 터널, 연약지반, 준설매립항만,

시공 등 6개 분야에 논문들이 발표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과 성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회의 원로 회원인 이장오 포스코건설부사장과 전준수 대우엔지니어링부사장 두분이 특별 강연을 통해

후학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전수하여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는 늦가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 및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점심 시간에 있었던 회장 선거 개표 및 결과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습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화환을 일체 사절하고 회비 역시 실비만 받는 등 여타 학회 행사와 달리 행사를 검소하게 치르는 모범을 선보였습니다. 행사후 저녁에는 회장 당선자가 한턱 쏘겠다고 하여 40여 회원이 뒷풀이를 겸하여 소주 한 잔 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둘째날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905공구(한진중공업), 910공구(동부건설)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견학 후에는 위 두 공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감사패와 기술발표회 논문집 10권씩을 전달하였습니다. 견학온 단체에서 감사패를 받기는 처음이라는 후문입니다. 그동안 받기만 하던 관행에서 탈피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견학에는 우리회의 회원이기도 한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이인근설계감리부장과 910공구 김재성 연락관이 자리를 함께 하여 행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지반공학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을발

표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쉬움이 없지는 않으나 공동 주최를 통해 더 많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 회원 동정(2005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전직, 승진 등

- 강신철 (보람엔지니어링 → 동아기술공사 전무)
- 구용희 (한국철도기술공사 → 선구ENG 부사장)
- 김동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 전무)
- 김재성 (GS건설 차장 → 부장)
- 나도용 (한석엔지니어링 → 수성엔지니어링 전무)
- 남명우 (하리E&C → CD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박병찬 (건화엔지니어링 전무 → 부사장)
- 박중호 (대원토질 전무 → 사장)
- 이기용 (삼정건설 전무 → 정도지오택 부사장)
- 이대형 (진흥기업 → 세바비존 대표이사)
- 이종범 (우대기술단 상무 → 전무)
- 이현택 (대유지오택 → 유일종합기술단 전무)
- 최승일 (지오브로그코리아 차장 → 부장)
- 최영근 (동편이엔씨 → 아이콘택 대표이사)
- 최해준 (창석엔지니어링 이사 → 상무)

●●경조사

- 소충섭 (삼보기술단 전무 - 1. 1 부친상)
- 여유현 (가야ENG 사장 - 1. 13 부친상)
- 박세주 (이제이텍 대표이사 - 2. 26 빙부상)
- 하은룡 (산하이엔씨 대표이사 - 3. 3 부친상)
- 이철규 (홍익기술단 상무 - 4. 11 부친상)
- 김승렬 (에스코컨설턴트 대표이사 - 4. 11 모친상)
- 오해진 (제일엔지니어링 전무 - 4. 14 부친상)
- 이양희 (아이에이스컨설턴트 부사장 - 5. 16 빙모상)
- 류정수 (브니엘컨설턴트 대표이사 - 6. 18 모친상)

» 신규회원 입회비 및 종신회비 납부현황

2004년

월	성 명	기 수	입 회 비	종 신회 비	합 계
1	이상필	61	₩300,000		₩300,000
	장연수	35		₩1,200,000	₩1,200,000
	이성훈	71	₩300,000		₩300,000
	신중훈	65	₩300,000		₩300,000
	정종민	48		₩100,000	₩100,000
	강병윤	60	₩300,000		₩300,000
	윤상길	51	₩300,000		₩300,000
2	이진태	67	₩300,000		₩300,000
	김경열	67	₩300,000		₩300,000
	차달성	65	₩300,000		₩300,000
	김동범	63	₩300,000		₩300,000
3	최성욱	63	₩300,000		₩300,000
	박상욱	67	₩300,000		₩300,000
	유상호	59	₩300,000		₩300,000
	양기석	66	₩300,000	₩900,000	₩1,200,000
4	이종범	46		₩900,000	₩900,000
	장학성	38		₩800,000	₩800,000
	양구승	50	₩300,000		₩300,000
5	김재성	70	₩300,000		₩300,000
	류연택	40		₩700,000	₩700,000
6	이기용	51		₩900,000	₩900,000
7	허승범	57	₩300,000		₩300,000
8	정필섭	72	₩300,000		₩300,000
	권혁기	58	₩300,000		₩300,000
	신창건	61	₩300,000		₩300,000
	안상로	62	₩300,000		₩300,000
	윤태국	59	₩300,000		₩300,000
	김석조	62	₩300,000		₩300,000
	박동운	60	₩300,000		₩300,000
	김광태	40	₩300,000	₩900,000	₩1,200,000
	문동춘	62	₩300,000	₩1000,000	₩1,300,000
	정태익	55	₩300,000		₩300,000
9	김종주	66	₩300,000		₩300,000
	공병철	71	₩300,000		₩300,000
	문홍득	70	₩300,000		₩300,000
	이병헌	58	₩300,000		₩300,000
	최해동	72	₩300,000		₩300,000
9	김병주	56	₩300,000		₩300,000
	고경환	67	₩300,000		₩300,000
10	송경석	51		₩200,000	₩200,000
	정우택	56	₩300,000		₩300,000
11	강명원	68	₩300,000		₩300,000
	이래철	56	₩300,000	₩1,000,000	₩1,300,000
12	박재성	61	₩300,000		₩ 300,000
	강병윤	60	₩1,000,000		₩1,000,000
	김광호	51		₩1,000,000	₩1,000,000
합 계	04년 1~12월까지		₩11,100,000	₩10,600,000	₩21,700,000

2005년 1월 1일 이후 회비 납부자명단

월	성명	기수	입회비	종신회비	합계
1	고광진	58	₩300,000	₩1,000,000	₩1,300,000
	박정호	57	₩300,000	₩1,000,000	₩1,300,000
	최종민	60	₩300,000		₩300,000
	윤석렬	54	₩300,000		₩300,000
	이봉렬	53	₩300,000	₩1,000,000	₩1,300,000
	박정순	59	₩300,000		₩300,000
	신경섭	50	₩300,000		₩300,000
	이복영	64	₩300,000		₩300,000
	박재원	58		₩1,000,000	₩1,000,000
	신중훈	65		₩1,000,000	₩1,000,000
2	김경택	54		₩1,000,000	₩1,000,000
	장준호	59		₩1,000,000	₩1,000,000
3	이완진	55		₩1,000,000	₩1,000,000
	길호연	64	₩300,000		₩300,000
4	정재성	73	₩300,000		₩300,000
5	하응	47	₩300,000		₩300,000
	김창현	56	₩300,000		₩300,000
6	서성봉	64	₩300,000		₩300,000
	여규권	56	₩300,000		₩300,000
합계	05년 6월까지		₩4,800,000	₩8,100,000	₩12,900,000
	총계	04년~05년 6월까지	₩15,900,000	₩18,700,000	₩34,600,000